

##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!

높은 하늘 아래 가을이 여무는 계절입니다.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2019년은 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가 제정된 지 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 동안 교육공동체가 조례의 취지와 가치를 공유하여 교육현장 곳곳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.

**학교는 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배우는 작은 세상입니다.**

학생 한 명의 소중한 생각을 교육활동 속에서 귀히 여기는 문화는 미래사회의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. 학생, 교사, 학부모가 생활 속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할 때, 민주주의 사회를 꽃피우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**자신의 권리는 타인에 대한 존중,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.**

세계인권선언에는 ‘어떤 규정도 다른 국가, 집단,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(제30조)’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학생 인권이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동시에,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.

경기교육은 2019년을 학교자치, 학교민주주의, 교육자치 원년으로 삼아 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가 학교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생의 교육정책 참여와 결정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
10월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을 맞이하여 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2019.10.1.

경기도교육감 이재 정

